

행복을 전하는 함평의 결혼이주여성



모마리 씨 삶의 활력소인 남편과 세 명의 아들.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를 시골벽처럼 맞이하는 가족 덕분에 항상 행복하다.

학생 수가 300명 남짓한 함평중학교의 점심시간. 교내식당 안에서 유쾌하고 애정 넘치는 목소리가 들린다. “아빠, 천천히들 가꾸가. 넘어지면 다쳐야”라는 말투며 아이들을 살피는 모습에서 살뜰한 정이 느껴진다. 올해로 5년째, 급식 조리사로 일하는 모마리 씨다.

모마리 씨는 함평중학교 학생 모두의 어머니로 불린다. 식기를 들고 모여드는 학생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친근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관심을 쏟는다. 그 덕에 함평중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1위는 언제나 모마리 씨다.

오후 1시 30분, 급식이 끝났다. 지금껏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환숨 돌리는 모마리 씨. 전라도 사투리를 유창하게 구사하던 그녀의 생김새는 우리나라 사람과는 사뭇 달랐다.

“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답니다.”

당황하게 한 문화 차이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서 태어난 모마리 씨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속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컸다. 그에 보답하듯 언제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생각이 모마리 씨의 마음속에 자리했다.

“결혼식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오신 시아버지가 그만 몸살이 나셨어요. 그렇게 몸져 누워 계시는데, 남편이 약을 찾고, 종일 안마 해가며 지극정성으로 돌보더라고요.”

모마리 씨는 자신처럼 부모를 극진히 대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반했다. 청각장애

가 있는 남편이었지만, 그렇게 따스한 마음의 소유자라면 괜찮으리라 생각했다.

그렇게 2004년 남편을 만나 우리나라로 넘어온 모마리 씨를 당황하게 했던 일들은 문화 차이에서 벌어졌다. 모마리 씨는 국내에서는 현재도 생소한 이슬람 교인이다. 하루는 고생하는 모마리 씨를 위해 시부모가 돼지고기로 저녁을 차렸다. 이슬람 교인에게 돼지고기는 금지된 음식임을 그들은 몰랐다. 본인을 위해 차린 음식이니 모마리 씨는 일단 맛있게 먹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마리 씨는 온몸에서 가려움을 느꼈다. 동시에 팔뚝과 목덜미까지 올라온 두드러기를 발견했다. 목도 따가워지고 견디기 힘들어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다. 원인은 돼지고기 알레르기였다.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남편과 가족들 모두가 가슴이 철렁했던 큰 사건이었다.

언제나 고마운 가족

결혼 초기,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던 모마리 씨는 시부모의 눈을 피해 몰래 고향으로 전화를 걸었고, 폭탄처럼 120만 원이란 큰 금액의 고지서로 되돌아왔다. 모마리 씨는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큰 꾸중을 들었다. 그날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모마리 씨를 남편은 꼭 안아줬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외롭지 않도록 평생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남편은 모마리 씨를 애정으로 감싸 안았다. 시부모가 모마리 씨를 말일이라도 보내면, 그때마다 남편은 '우리 마리 좀 쉬게 댁요'라고 아내 편을 들었다.

2020년 11월 아산재단의 아산상 효행·가족상을 받았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고 자랑스러워했던 사람 역시 그였다. 온종일 수화로 손짓해가며 자신이 일하는 함평군청의 동료에게 자랑스럽게 알렸다. 먼 타국으로 넘어와 외로운 자신을 언제나 살뜰히 챙기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 고마운 마음이 앞선다.

모마리 씨의 곁을 지키는 이들은 더 있다. 세 명의 아들이다. 명랑하고 의젓한 첫째, 조용하고 과묵하지만 할 말은 곧 잘하는 둘째, 먹을 것 앞에서는 항상 무너지는 귀염 가득 셋째. 이렇게 남편을 포함해 한 지붕 아래 네 명의 남자들이 모마리 씨 곁을 지킨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아이들과 남편 때문에 집안은 늘 시끌벅적하다. 쉴 새도 없지만 모마리 씨는 그들이 있어 너무 행복하다.

"우리 어머니 음식은 너무 맛있어요. 그중에 인도네시아 본토 요리를 자주 해주시는데, 어머니 표 인도네시아식 카레와, 볶음국수인 미고랭을 먹고 나니 바깥에서 파는 음식들은 전부 시시해지더라고



수화도 인도네시아어도 척척 알려주는 어머니 모마리 씨는 세 아들에게 언제나 멋진 선생님이야.

요"라며 이구동성으로 아들들은 모마리 씨를 자랑했다. 그 모습을 보는 모마리 씨의 표정은 연신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함평의 행복 전도사

모마리 씨는 전라남도 함평에서 유명인사다. KBS 인간극장에 출연하며 지역에 이름을 알렸다.

시어머니 모복순 씨는 "우리 마리는 항상 남을 아끼고 위할 줄 안다"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과 시부모와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것도 다 모마리 씨의 덕이었다. 청각장애가 있는 남편과 대화하기 위해 모마리 씨가 익힌 수화는 그동안 단절됐던 가족의 대화에 불꽃을 새로이 뿜었다.

직장, 이웃, 함평다문화센터 등의 주변인들 모두 모마리 씨에 대한 칭찬으로 입이 마를 새 없다. 부드럽게 다가가는 붙임성과 나긋한 그의 성격, 그리고 친절함이 한몫했다.

모마리 씨는 주변도 꾸준히 챙긴다. 4개의 국적 출신으로 이뤄진 으라차차 봉사단의 일원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며 말벗이 되고 즐거움을 전해왔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중단했지만 6월 중순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함평 어르신들의 적적함이 모마리 씨의 밝은 웃음으로 채워질 날도 멀지 않았다.  글 편집부/사진 송은지